

2017년 4월 24일 월요일 (음 3월 28일)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5·9 촛불대선 D-15 대선공약 재원마련 "현실성 없다"

## 복지공약 이행 증세 '불가피'

제 1793호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 선주자들이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원마련에는 현실성이 없 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 여성, 청년 일자리 문제 해 결을 위한 고용부문부터 육아휴직 같은 복지공약, 중소기업 및 미래 인재 육성 등의 공약은 현재 우리 경제에 요구되는 것들이다.

소요재원이 조단위가 넘는 천문 학적인 예산이 소요되지만, 각 후 보의 재원조달 방안은 '세출.지출 예산 조정'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더라도 이를 이행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 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공개된 대 선후보들의 재원마련책은 현실성 이 없다고 평가하다.

특히 새정부 출범 이후 무리하게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예산을 편 성할 수는 있지만, 이는 국가재정 사용의 우선순위가 엉키는 결과를 불러와 기대한 만큼의 정책적 효 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 기된다.

'선언적 공약'에 따른 경제적 후 폭풍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19대 대통령에 누가 당성되든 자 신이 내놓은 공약을 실행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당 대선주자 중 홍준표 자유한 국당 후보를 제외한 4명이 법인세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

보는 23일 "우리

의 주도로 핵 없

는 한반도를 만

들겠다"고 약속

문 후보는 이

날 서울 여의도

헌정기념관에서 '한반도 비핵평화구

주도해 북하의 선(先) 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가

했다.

문재인, "우리 주도로 핵없는 한반도 만들 것"

후보자 5명 중 홍준표 유일하게 법인세 '감세'

문재인 등 나머지 4명 '증세'

기업 경영여건 끌어내려 법인세 인상에 재계 '불안'

명박 · 박근혜 정권 동안 지속적으 로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있었 다"면서 "고소득자 과세강화와 자 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조세의 누진성 강화를 강조했다. 안 후보 는 "조세형평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면서 "첫 번째로 소득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고, 둘째로 제 대로 누진제가 적용되는 것이 중 요하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비 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많은 대선후보가 수많은 복지 프로그램 공약을 하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다' 면서 "소득이 더 많은 사람, 재산 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내는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면 되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우리 국 민이 바라는 조세 정의는 두 가지 인데 하나는 형평성 문제"라며 "복 지에 필요한 돈을 그 목적으로만

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 내겠다. 중

국 역할론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한국

역할론을 실천적 전략으로 삼아 정책

의 새 틀을 짜야 한다"며 이같이 밝

그는 우선 "국방력의 압도적인 우위

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어가겠다.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하

도록 하겠다. 북한은 핵과 미시일을

고집하다 결국 고립에 이은 궤멸의

길로 갈 것인지, 핵을 포기하고 평화

와 번영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쓰는 사회복지세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들과 달리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법인세 감세를 들고 나왔

그는 "우리나라 국민의 35~40% 가 면세이며 상위 20%가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3%를 낸다"며 "그 렇기 때문에 부자 감세하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 차라리 법 인세 같은 것은 감세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대선 후보들이 집중하는 공약은 경제와 일자리다. 한국경제가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어느 때보 다 힘겨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제는 '법인세 인상'이 오히려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은 역효과 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 다면서 오히려 기업의 경영여건을 끌어내리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 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여전 히 불안감에 속에 있다. 특히 상법 개정안과 법인세 인상은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복지를 하려면 경기 를 활성화시켜 기업이 더 많은 세 금을 내게 해 이것으로 복지재정 을 충당하면 된다"며 "그런데 복지 는 복지대로 늘리고, 기업은 기업 대로 규제를 한다. 기업이 성장을 못하게 막아놓고 어떻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건지 말이 안된다"고 /안재용 기자

문 후보는 "70년 전 우리에게는 아

무런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며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을 재개하

겠다. 미국을 설득해 북미관계 개선

을 유도하겠다. 북한을 설득해 대화

의 장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을

문 후보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비핵화와 함께 평화

협정 체결이 포괄적으로 추진돼야 한

다"며 "상호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

거해야 한다.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

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북한의 변화

를 전략적으로 견인해 내겠다"고 약

밝혔다.

속했다.



송하진 도지사와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단이 2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9회 아시아 태평양지역 스카 우트 리더 총회 개회식(25개국 참가)에 참석해 각국의 대표들에게 2023세계 잼버리는 새만급이 최적의 장소임을 피력하며 유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송하진 도지사와 각국 대표들이 부채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세계잼버리 유치… 아 · 태지역 표밭 다지기

## 송 지사, 인도네시아 발리서 서밋 총회 참가 호주 · 일본 등 25개 회원국 대상 유치 총력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자'

전북도가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 치를 위해 안방인 아시아 · 태평양지 역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전폭적인 유 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총력전에

특히 개최지 결정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어서 송하진 지사를 비 롯해 유치위원장인 이주영 국회의원, 한국스카우트 함종한 총재, 한국관광 공사, 주 인도네시아 대사 등 민· 관·정계 지휘부가 총출동해 표심 결 집에 들어갔다.

오는 8월 1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승전보 를 기획하고 있는 전북도 등 대하면 국 유치단은 22일부터 인도네시아 발 리에서 개최되는 아・태 서밋총회에 직접 참가해 한자리에 모이는 아태지 역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치 홍 보활동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전방위 유치활동에 돌입했다.

개최지 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전체 회원국은 최근 2개국이 추가돼 166개 국이며 각 국기별 6표를 행사하게 된 다. 따라서 25개 아시아 회원국들은 150표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회의에는 송하진 지사 외에 한 국스카우트연맹 함종한 총재와 2023 세계잼버리 유치위원장인 이주영 국 회의원, 한국관광공사 강옥희 본부장 이 참석해 유치활동에 힘을 보태며 아태 회원국 100% 유치지원을 목표 로 홍보활동을 펼친다.

또한 현지에서는 조태영 주인도네시 아 대사와 한국관광공사 오현재 자카 르타 지사장도 합류해 25개국 주요인 시들을 상대로 개별 면담하는 등 유 치성공을 위해 민관정계가 모두 나서

유치단은 매일 5-6개국 개별 국가들 과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특히 24일 총회와 전북도가 주최해 진행하 는 코리아 리셉션에서는 대한민국 유 치준비 상황을 홍보영상과 함께 프레 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송 지사를 비롯 \_ 한 대표단 모두가 한복을 입고 유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로 했다.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잼버리 유치 에 대한 전북도의 충분한 인프라 여 건과 성공개최를 위한 지방정부차원 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표심을 결집시킬 계획이다.

한편 아태 서밋 회의에는 유치경쟁 대상국인 폴란드 대표단도 참석하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의식하며 유치활 동이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표다은 폴라드와 의 비교 등 네거티브 유치활동보다는 독자적으로 편안하게 활동하기로 전 략을 모았다.

전북도와 잼버리 유치 관계자들은 "지역적으로 아태 회원국들은 그간 꾸준하게 우리나라와 스카우트 발전 을 위해 협력해온 나라들이 많은 만 큼 유치활동이 쉬어보일 수 있으나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너는 심정으로 더욱 꼼꼼하게 표심을 확고히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

/안재용 기자

**3면** - 국민의당 의원 34명 '사드찬성'

16면 - 이 사람: 오페라 가수 이은선씨

아름다운 제19대 대통령선거

매일 INDEX

伏の来の片でして 고은 이동원(鼓隱 李東元)선생 추모

加加加工工

〈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평가 대상 대회 〉

일시: 2017. 5. 5(금) 09:00~15:00

장소: 부안초등학교 운동장





※ 주최/주관: 부안농악보존회, 전주매일신문사 ※ 후원: 대한민국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군의회